

함평군, 농업 패러다임 전환... '월급 받는 농부' 키운다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가축농·귀농 등 소규모 농가 판로 개척 월소득 150만원 이상 2천농가 육성 '연 매출 400억 달성' 목표

바른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함평군이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농업 패러다임을 전환, '월급 받는 농부' 육성에 나서 눈길을 끈다.

함평군은 19일 "민선 8기 들어 함평군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향후 5개년에 걸쳐 4대 전략 16개 과제를 본격 실행한다"고 밝혔다.

푸드플랜은 함평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품 등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체를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군민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함평 먹거리 종합계획 4대 정책과제는 ▲관계시장 창출 ▲기획생산체계 구축 ▲공공형 운영체계 확립 ▲거버넌스 활성화 등이다.

무엇보다도 함평 먹거리 종합계획은 가축농과 영세농, 여성농, 귀농 등의 소규모 농가도 잘 사는 함평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의 '월급 받는 농부' 2천 농가를 육성하여 연간 매출액 4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소규모 농가의 생산물을 유통·판매·소비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

해 함평군 농산물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생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판매를 위하여 지역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월야면 로컬푸드 직매장 이외에도 하나마트 내 로컬푸드 코너를 확대하는 한편, 2025년 준공 예정인 신활력혁신센터 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로 건립하게 된다.

또한 공공급식 분야에서 학교급식, 어린이집·유치원에 함평산(産)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물론, 공유농장을 활용해 학교급식에 로컬푸드를 납품하도록 하고 생산공동체 조직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은 단순한 농산물 유통을 넘어 군민 먹거리 보장의 관점으로 농가소득 양극화 해소, 가축소농의 유지 재생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며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순환경제 실현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함평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함평=김광훈기자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첫 회의 개최

무안황토갯벌축제·무안연꽃축제 일정 확정



무안군은 지난 16일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축제추진

위원회 위원 27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임원 선출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

의했다.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는 군의원, 축제전문가, 지역주민, 언론인, 관련 공무원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축제를 주관하게 된다.

회의를 통해 무안황토갯벌축제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하고, 무안연꽃축제는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화산백련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산 군수는 이 자리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 축제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광군수, 상무대 보병학교 방문 상생협력방안 논의 군부대 관계자 영광군 민간숙소 이주방안 등 상호 협의

영광군은 지난 15일 상무대(尙武臺) 육군보병학교(학교장 박원호)를 방문하여 영광군과 학교 간 상생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군부대 숙소 시설의 노후화로 인근 민간숙소 거주 희망자 증가와 군무원 신규채용 증가로 인한 민간숙소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군·관의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재 상무대가 소재한 지역의 경우 민간숙소가 크게 부족하여 ▲부대와 지근거리 ▲다양한 문화·관광·체육 공공시설 보유 ▲수도권, 광주시 등 대도시와 접근성 ▲먹거리·볼거리·즐거거리 등 주변생활 여건과 비교적 지역

인프라가 잘 갖춰진 영광군을 우선 염두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군 간부, 군무원, 장교, 부사관 등 현역 군 관계자 및 교육생을 비롯한 연관 가족, 최대 1,000여명이 주거를 목적으로 관내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종만 군수는 "현역 군 간부들의 민간숙소 이전을 위해 우리군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무원에게 LH 보금자리 행복주택 입주방안 등 주거정책을 다각적으로 지원 검토하여 많은 군부대 관계자가 거주지를 이전한다면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취학전 학부모교육 운영

영암교육지원청과 연계 '미리 SCHOOL 배움터' 실시

영암군가족센터(센터장 송영희)에서는 취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영암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2023 다문화가족 취학전 학부모교육 '미리 스쿨 배움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교육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 해결과 취학 전 준비사항 등 학부모역할을 돕기 위해 현지 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전하는 '미리 스쿨 배움터', 동행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신나는 작은 학교 배움터'로 실시되었다.

학부모들의 참가 편의를 위해 야간에 진행된 이번 교육은 △14일 삼호읍 가족센터 △15일 영암읍 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되었으며, 학부모 및 자녀 98명이 학교현장을 미리 체험하며 초등학교를 향한 험한 첫걸음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참석자는 "자녀를 양육하며 고민이 많았고 자녀의 입학을 앞두고 궁금한점과 불안함이 컸다"면서 갖가지 사항을 질문하였다

교육 관계자는 "자녀의 교육은 학교에서만 아니라 선생님과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에 협력해야 한다"며 가정에서의 지도방법과 기본적인 생활습관에 대한 부모 역할의 필요성을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